

“일자리·복지 총력...청년이 넘치는 화순 만들고 싶다”

바이오특화산단 지정 이끈 구북규 화순군수

만원 임대주택·마을주치의·야간경관개선 등 주민 위한 정책 호응 ‘연구개발-비임상-임상-생산-허가’ 바이오산업 인프라 완비 구축

목표는 단순하다. 젊은이들이 화순 곳곳에 자리 잡고 살게 하고 싶다. 그들을 위해 집을 주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불거리를 조성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생각이다. 그는 나머지 2년의 목표를 그렇게 잡았다.

사실 정치에는 관심 없었다. 19살에 공직에 입문해 35년을 보내고, 정년 7년을 남긴 지난 2009년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미련 없이 명예퇴직했다. 과수원을 사 농사를 짓는 그에게 몇몇 지역 유자들이 찾아왔다. “당신이 나서주길 바란다”라는 말에 “그럴 뜻이 없다”라고 매몰차게 거절했다. 하지만 “나무는 움직이지 못한다.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닌가. 화순을 장으로 당선처럼 잘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혼자 고집 잘 지키고 더불어 잘 살자”는 간곡한 요청에 고집 끝에 정치에 발을 들였다.

2011년 4·27 보궐선거에서 당시 최인기 국회의원의 추천으로 전남도원에 당선, 시작은 순탄했다. 하지만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화순군수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이후 4년간 과수원에서 지냈다. 미래가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이 한 번 더 기회를 얻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대책을 고뇌한 시간이었다. 다시 군민 앞에 나선 것은 2018년 6월, 도의회에 재입성해 후반기 부의장에 선출되는 등 정치적인 역량을 키웠고, 또 4년이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화순군수가 됐다.

구북규(69) 화순군수. 태어나서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적이 없고, 화순 곳곳을 발품 팔아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책으로 낸 그는 화순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한다. (2021년 12월 2년간 화순을 답사한 후 ‘남도의 으뜸고를 화순의 오래된 기억을 건다’를 출간했다.)

구 군수는 공직자로 살면서 몰랐던 군정의 문제점, 미래 발전 방안 등을 자연인으로 지내면서 깨닫고, 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가 내놓은 모든 노력을 총괄해 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임대주택,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화순 사평빨래방(65세 이상 무료 빨래방), 마을주치의, 자국민 전담 다문화팀(이주여성을 계약직 공무원 임용) 등의 정책, 그리고 야간경관개선, 개미산전망대, 화순천 꽃길길, 남산공원 등의 사업은 이미 군수실에 들어서기 전 구상을 마쳤다는 의미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군수가 되고 싶다는 구북규 화순군수에게 그동안 군정 성과, 살아온 과정, 미래 구상, 바람 등을 솔직하게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화순 군정이 놀라보게 달라졌다. ▲민선 자치시대 화순 군정은 좀 어지러웠다. 공직자로서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지켜봤는데,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퇴직하면서 정치를 완전히 접어버린 것도 그러한 혼란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선

6기부터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이후 군민들을 위한 군정이 가능해졌다.

-군수가 된 뒤 마음가짐이 남달랐을 것 같다.

▲군수라는 자리는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늘, 즉 군민들의 부름이 있어야 한다. 정치 경력은 미천하지만, 군민들이 인정해 주는 순리 행정을 하고 싶다. 군수라는 자리는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신조로 하고 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최근 바이오특화산단에 지정됐다.

▲이미 충분한 사업 부지가 확보돼 있고, 바이오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임상-임상-생산-허가 등의 전 과정과 관련된 인프라가 완벽히 구축돼 있었다. 지난 20년간 화순은 전남도와 함께 1조2000억원을 투자해 바이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다. 여기에 백신산업 특구는 세계보건기구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로 지정받아 국내 최고의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모든 여건이 화순이 될 수 밖에 없었다. 2034년까지 인구 15만 5천 명, 일자리 1만개 창출, 1조 2000억 원 외투 투자 유치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면 청년들이 더 들어올 것이다.

-2년인데, 벌써 히트작이 상당하다.

▲공직에서 은퇴한 뒤 자연인 신분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 내 고향 화순이 잘 될 방법은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했고, 정치에 입문한 뒤 내

가 군수가 되면 이것을 실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고 싶었다. 모두 군민의 입장에서 설계했고 미래 화순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과 사업들이다.

-만원주택을 이야기 안 할 수 없다.

▲15만을 넘었던 화순의 인구는 이제 6만까지 내려왔다. 화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집이 그날 주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결혼도 하고, 아이를 키워준다면 아이도 낳을 것으로 생각했다. 처음에는 공짜 주택을 생각했는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매달 1만원만 받기로 했다. 만원 주택에 들어와 사는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길 수 있도록 화순형 24시 어린이집도 운영한다. 공개모집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2곳을 선정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교사를 채용했다. 부모들에게 시간당 1000원을 받고 있다. 반응은 몰아볼 것도 없다. 폭발적이다. 거기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화순군에서는 결혼축하금 명목으로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총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이 만원 주택으로 화순을 달리 보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인터뷰 전문은 인터넷 광주일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마련 나선다

강기정 시장, 현장 간담회...시스템 강화·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배달의 민중’ 등 대형 민간 플랫폼의 독점화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광주일보 7월 29일자 1면>과 관련해 광주시가 공공배달앱 활성화 대책 등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경제 행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31일 광주시 공공배달앱 ‘위메프오’와 ‘뽕겨요’ 입점 업체인 광산구 신창

동 소재 음식점에서 소상공인·소비자 등과 ‘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현성 광주경제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하재욱 위메프오 대표, 홍진호 신한은행 ‘뽕겨요’ 사업단 팀장, 이기성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 김상재 한국의식업중앙회 광주지부 회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대책으로 광주시에 ▲공공배달앱 홍보 강화 ▲소비자 부가서비스 지원 ▲편리상·품질 강화 ▲공공배달앱 영업조직 강화 등을 주문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 공공배달앱, 소상공인·가맹점, 소비자 등 4곳에서 각자 해야 할 일이 무엇 인지를 파악하고, 공공배달앱을 다시 디자인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 배달 중개수수료가 최대 12.5%에 이르는 민간 배달앱의 횡포에 맞서 수수료를 2%까지 낮추고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점유율이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尹, 노동부장관에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지명

이진숙 방통위원장·김병환 금융위원장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이 전했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 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30대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한 후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으며, 두 차례 경기지사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셨다”며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실수가 대폭 감소했다”면서

도 “노동 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천인공노할 인사 참사”라며 “지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환노위 야당 소속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공개 석상에서 ‘불법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 ‘민주노총은 김정은 기쁨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스스로 반노동·반국민적 정부임을 자인하니”라고 비판하고 나서 청문회 과정에서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반(反)노동 인사 참사”라고 규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통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또 방통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일본부에서 박정희 국립외교원장, 주호준대사에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 후임에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를 임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전남, 김 수출량 1조 시대...4년 연속 전국 1위

전년 대비 6.2% ↑ ...다시마·멸치 등 수산물 가공산업도 증가세

전남지역 김 생산액이 1조원에 달하는 등 해외 김 산업을 이끌고 있다. 수산가공품 생산액도 2조원에 육박하면서 국내 수산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수산가공품 생산액이 1조 9933억원에 이르는 등 2조원을 육박하면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6.2%(1161억원) 증가한 규모로 4년 연속 전국 1

위다. 전남의 수산물가공 생산액의 경우 2020년 1조 5136억원에서 1조 6773억원(2021년)→1조 8772억원(2022년)→1조 9933억원(2023년)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인 김의 경우 전남에서만 전국 생산액의 60.7%(1조 2221억원)를

차지하는가 하면, 가공 생산액도 전년도에 견줘 3971억원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 김 산업의 핵심 지역을 이끌고 있다. 김 외에도 참치(913억원), 새우(217억원), 다시마(178억원), 멸치(165억원) 등의 가공 생산액이 1473억원으로 전년도에 견줘 28.4%(330억원) 늘어나는 등 수산물 가공산업도 크게 발전하는 모양새다.

전남도는 수산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김 산업 진흥구역 지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마린푸드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수산가공·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지방공기업법」 및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8월 1일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임용예정 인원	주요 직무내용
비상임이사	3명	• 공단 경영에 대한 정책제안, 자문 등 경영지원 • 공단 이사회의서면의견서, 의결

2. 임기 및 보수
가. 임용일로부터 3년(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 별도 급여는 없으며, 회의 참석 수당 등 실비 지급

3. 응모자격
가. 자격기준
•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법률전문가
•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할 경력에 있는 사람
• 기업경영, 채용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나. 직무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

구분	직무수행요건
비상임이사	• 공개모집 및 인사관리분야에 대한 경영이론과 자문 능력을 갖춘 사람

다. 결정사유(지방공기업법 제60조)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사해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9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학제

4. 응시범위 접수 ※마련일 1800까지 도내(전남)에 한하여, 병행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중(평일) 가능
가. 기 간: 2024. 8. 1(목) ~ 8. 16(금)
나. 장 소: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광주광역시 서구 경원로 17번길 9, 6층(농성동, 거승빌딩))
다. 방 법: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010)2101010@seogang.com.kr
※ 이메일 제출 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PDF 형식 1개의 파일로 제출 후 수신 확인
라. 제출서류 ※ ①~④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① 지원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A4 용지 4매 이내)
③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④ 주민등록 초본(명적사항 포함) 1부

5.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심사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면접심사는 병행할 수 있음.
나. 서류심사: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다. 면접심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평가 가능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시험 실시
•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노사 및 직원 친화력, 윤리관 등 총 5개 평가항목의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거 심사
라. 최종합격자 발표: 서구청 및 공단 홈페이지, 콜센터에서 개별, 통지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본 임원선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응시자가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본인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선임을 취소합니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임원후보의 추천절차)와 관련하여 응시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모 등 별도 계획에 의거 선발합니다. 이 경우 기존 지원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합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자의 제출서류를 요구할 경우에는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접수여부 미확인,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응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공모계획은 상황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구청 및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062-601-60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아래의 각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신청서 관련하여 민법 제1056조 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피상속인의 표시
• 피상속인: 문아배
• 생년월일: 411113
•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4년단79
• 등록기준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길 101
• 최후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길 101.
상속재산(요양병원료, 애중복지재단)

• 사망일자: 2023. 8. 15.

2. 위 각 피상속인의 일반상속재산과 유증받은 자는 그 재력 또는 수중에 2024년 10월 15일까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내에 재력 또는 수중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관리인 표시
•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이상열
• 주소 및 신고지: 목포시 경의로 22, 302호
(목양동, 새생명프라자) ☎061-242-5000
2024년 8월 1일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이상열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보호 공고)
주식회사 이화솔라에너지(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보광이앤에이(이하 “을”이라 함)는 2024년 07월 31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가공사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문을 “을”에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 1개월 내에 관계 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입니다.

2024년 8월 1일
“갑” 주식회사 이화솔라에너지
(법인등록번호: 205211-0054673)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교동길 1
대표이사 임 덕 빈
“을” 주식회사 보광이앤에이
(법인등록번호: 205011-0014720)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우봉송지길 65, 2층
대표이사 최 종 화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